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33, 에스겔,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Boker Tov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Boker Tov의 아침이군요, 그렇죠? 보커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공지사항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메이크업 시험과 관련하여 실제 라이브, 본격 메이크업 시험을 하고 계시거나, 아직 해보지 못한 과목을 재응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장소 등.

그리고 재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정말 무거워지고 어쩌면 약간 현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중요한 몇 가지 발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음악 유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음악적 유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미아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정미아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며 우리는 그녀를 상주 예술가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말은, 그녀는 교수이지만 그녀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토요일 밤에는 가볼만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Gordon 학생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고든 교수진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요, 테드.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그녀를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지금까지 쓰여진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음악 교수이기도 한 Michael Monroe는 정말 깔끔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5분 동안 그녀가 이번 공연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나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합창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신포니아 합창단이 일요일 밤 Gordon-Conwell에서 마지막 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즉,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채플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채플 학점을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시다면 채플 학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좋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노래에 관해 여기저기서 궁금해하고 있었으니, 우리가 함께 시간을 시작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구속자, 지극히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시작할 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당신의 현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일이 이루어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말씀 앞에 예배하고, 당신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든 학기말에 우리는 서로 부락을 드렸습니다. 지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빠른 복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족꾼의 끝에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다시 끌어당겨 당신의 품에 안고 당신에게 가까이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각계, 대학,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제인들의 리더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들에 당신의 임재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유배와 관련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금요일에 우리는 다니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스겔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약간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을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은, 아마도 고든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 나아온 분들은 아마도 에스겔서를 접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학교에서 자랐다면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는 에스겔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응, 첼시.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글썄요, 그것도 아주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일어나는 놀라운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나중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고 애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리해야 합니다.

에스겔에 관해 당신이 아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 마른 뼈들의 골짜기입니다. 노래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그들이 Bones 노래를 그만 부르셨나요? 뼈가 들어 있고, 뼈가 있고, 마른 뼈가 있고, 뼈가 있고, 뼈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 일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

테이프에서 저 테드를 삭제하세요. 어쨌든요.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37 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이 놀라운 환상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아 이런, 그게 어떻게 거기 몰래 들어왔지? 그것도 좋아하는 소비세. 그것은 일종의 방해가 되고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실제로 따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에스겔은 왜 파수꾼이라고 불리나요? 그는 파수꾼이라고 불린다.

아는 사람 있나요? 사라. 아,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선지자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명칭에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강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불린 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얻으십시오. 그 후에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까지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그게 중요할 거예요. 아니요, 자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선지자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2,500년 전에 살지 않았으며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 우리가 그들의 삶,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일, 그리고 그토록 암울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적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실한 신자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첼시는 방금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과 그것의 상징적 성격, 그리고 그가 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신실한 삶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말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후에 파수꾼 문제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개를 통해 여기서 프레임워크를 설정합니다. 역사 검토.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말했지만 우리가 알고 상기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바벨론 군대가 진군해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을 단번에 휩쓸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서 두 번 급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와서 수많은 추방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다니엘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605년부터 시작하여 597, 587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 후에도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 그들을 추방하십시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난민을 크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어딘가로 끌려가는 난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아마도 난민도 아닐 겁니다.

에스겔에게 그것은 597년에 유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가 이러한 예언을 할 때, 1장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는 땅 밖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바벨론에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 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머리털을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점에서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의 작은 내용은 퀴즈에 불과하지만 재미를 위해 계속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예하작 엘 (Yehazak El), 여호와께서 붙잡으시게 하라, 혹은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작 (Hazak)은 붙잡다, 붙잡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예하자켈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단지 약간의 배경일 뿐입니다. 여기서 약간 작업해야 할 또 다른 소개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랬듯이 신약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고, 아마 그것과 연계하여 묵시적인 장르도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올바른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록은 당신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어로 '이성적인 관찰과 측정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만드는 문학 유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정의는 특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실제로는 그 정의를 조금 더 확장했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묵시문학은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하늘의 영역을 들여다보는 일이고, 물론 에스겔은 그 중 일부를 할 것이지만, 또한 끝까지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흥미로운 점은 묵시문학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특히 두드러지는 장르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외부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억압을 당할 때, 기본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경우 우리는 왜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가? 나중에는 시리아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가 될 것이고, 이런 묵시문학 장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성 요한의 계시와 로마인의 억압,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묵시문학은 마지막에 희망을 기대한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문학의 주요 특징 중 첫 번째입니다. 선이 승리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이 승리할 것 같지 않은데도, 돌아설 때마다 또 한 가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깊은 감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성상 첫 번째 문제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보게 될 것이고, 다니엘서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서의 일부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환상적 경험, 꿈, 비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적인 이미지. 에스겔서 1장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몇 가지 시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나쁜 예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좋은 예술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이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에 머리가 넷, 날개도 넷, 바퀴도 넷이고 바퀴 안에는 주위에 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이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묘사할 이미지 중 일부는 정말 특별합니다.

Gordon College를 돌아다닐 때 발견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간의 구분, 숫자의 상징적 사용 등을 우리는 특히 다니엘서에서 보게 될 것이며, 특히 계시록을 공부할 때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 묵시록인 에스겔과 다니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안하고 싶지만, 그것은 확실히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 사이에 성장한 수많은 묵시문학인 위경(pseudepigrapha)에 적용됩니다. 신약 성서.

이런 장르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사이에는 아주 풍부한 유사 문헌이 있습니다. 오셔서 성경 연구 입문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실제로 그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신약성경에 이 서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거 괜찮나요? 좋아, 계속하자.

조금 전에 그룹들과 함께 1장을 제시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시도를 조금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룹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1장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사자의 머리, 독수리, 소가 있습니다. 남자. 그리고 이 모든 날개와 바퀴와 병거도 보입니다. 물론 여기 에스겔이 그들 앞에 쓰러져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도가 있는데, 바퀴 안의 바퀴, 바퀴 주위의 눈이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에스겔 1장의 말씀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려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천구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단어가 제시한 것을 예술 형식으로 표현하려는 시도이며,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루려는 것입니다. 글썄요, 우리는 다시 해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적어도 잠시 후 1장부터 10장까지의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연대순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의 신탁이 있고 저기에 또 하나의 신탁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엮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은 꽤 질서정연해요.

따라서 이 책의 기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그 운명, 특히 성전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신 에스겔의 메시지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 일부에 대해 잠시 후에 집중할 것입니다.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에 들어온 극악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도록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이 나타나고, 모압이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문자열, 일반적인 문자열이지만 특별한 강조가 있는 에스겔서에서는 특이합니다. 그렇죠? 에스겔서에서는 더욱 확장되어 두로 와 두로 의 왕을 특히 강조합니다 .

나는 오늘 조금 후에 그 특정한 우화에 대해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로 의 왕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소 중요하며 그것은 두로 자체의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두로는 어떤 주요 도시인가요? 지정학적 영역은 무엇입니까? 페니키아,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미 페니키아에서 유입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살펴보았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33장부터 48장은 주로 회복적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비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회복을 묘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림을 볼 뿐만 아니라 성전의 회복도 봅니다. 사실, 에스겔은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에 대해 꽤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사원인지, 왜 복원된 방식으로 복원되었는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좋습니다. 파멸과 파멸, 외국 국가에 대한 심판의 선언,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나긴 약속입니다. 조금 더 진행해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알았어, 그 사람은 파수꾼이야.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곧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는 파수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3장과 33장에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하더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죄 초기에 말씀하신 말씀이고, 회복 장의 초기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좀 중요해요.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거듭 본문을 읽어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여라. 인자야, 이것저것 하라, 그렇지 아니하니? 기본적으로 이는 정중하게 '이봐요, 주목하세요, 인간이여'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을 인간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집을 두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메모장이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갖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금요일에 사람의 아들 타이틀 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다니엘은 같은 제목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기준점은 현저히 다를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에스겔에게는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인자라고 불리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그의 인성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직자이기도 해요. 1장 3절은 그가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성전과의 관계에 대해 말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예레미야가 깨어진 언약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것처럼 에스겔도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특별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원. 그리고 그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회복이 그토록 강력한 성전 용어로 제시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가 두 번째 추방 물결의 일원이라고 말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주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의 부름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선지자들과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세 가지 대표적인 표본을 볼 때 그것을 조금 살펴봤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고 , 환상과 그룹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는 키바르 강변의 유배자 중 하나입니다. 하늘이 열렸고, 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우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또는 그와 비슷한 곳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땅 밖에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선지자 중 한 사람.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땅 밖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놀랍지 않게 이스라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3시 14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2장을 읽어보세요. 3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니 곧 나를 배반하고 패역한 나라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나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계속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고한지를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역사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설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완고하고 고집스럽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놀라운 일에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져오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당신은 모호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즉, 에스겔은 스페인으로 가거나, 영국으로 가거나, 당신이나 당신의 종교에 대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백성에게로 가라, 내 백성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외국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집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악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 영은 나를 들어올렸고, 그것은 날개의 돌진과 그 모든 것을 묘사합니다.

14절, 그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라. 행복한 캠핑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비통하고 분노하여 갔으나 그는 가느니라.

기억하세요, 예레미야도 자신의 임무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파수꾼. 그래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은 정체성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있으면 실제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서 그들을 경고해 주십시오. 18절,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은즉 너 에스겔아 너는 그에게 경고하지 말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말로 그 생명을 구원하지 말라.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요 나는 그의 피에 대하여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니라 와,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약간의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에스겔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단지 '아, 그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계속해서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두었은즉
그가 죽으리니 이는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네가 의인을 깨우쳐 죄를
짓지 않게 하면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우침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살리라 너도 네 자신을 구원하리라.

우리 각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그 유혹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당연히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말은, 당신은 항상
그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마태복음 7장의 해당 부분을 문맥상 읽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낸 후에
그 사람의 눈에서 해자를 빼라” 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몇 구절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돼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돼지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우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안녕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몸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제가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을 흔들며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예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에 대해 온화하고 은혜롭게 대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를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이 점에서 가능한 한 겸손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하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여러분은 심판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전망은 아닐 겁니다. 그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잠들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을 얻으십시오. 고든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연약하며 때때로 책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33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냥 일회성 촬영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그 일을 두 번 말했습니다.

그는 걱정해야 해요. 글썄, 계속하자. 아,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험의 서막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지난 세기 반 동안 매우 흥미로운 발굴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대영 박물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 다른 장소에 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생물, 거대한 생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머리 부분이 바로 저기서 보여서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궁전에서 왕의 왕좌를 지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kerubu , karubu , keruvim 이라고 불립니다 . 알다시피, cherub은 히브리어로 keruvim 의 영어입니다 .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그룹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실을 보호한다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좌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들은 보좌가 있던 곳 아래에 있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보좌 아래에는 높고 존귀한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1장 끝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 좋습니다. 이제 비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이러한 것들의 출현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에서는 네 생물을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의 장엄함과 광채를 사진으로 찍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과 광채, 광채를 생각해보세요.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한 거대한 구름(1장 4절)이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의 중심은 빛나는 금속처럼 보였고 그 불 속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각각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고 발은 송아지 발 같았습니다.

이제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안은, 제 생각에 제가 여러분을 아주 잠깐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아마도 표현된 것처럼 보이는 흔적, 아주 작은 반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표현과 외관 종류가 많이 있지만 송아지 모양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들은 소와 같은 이집트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 보좌에 대한 기초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하심으로 그들이 바다를 건너 광야로 갈 때 그들과 동행하셨고

,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 정도로 소름끼치는 대담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에스겔이 이것을 볼 때 송아지의 발은 그룹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방이 사람처럼 손이 있고 영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12절).

15절에 내가 보니 각 생물 곁에는 땅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이 있더라. 18절에 보면 바퀴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니 생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퀴도 그 곁에서 움직이고 생물들이 땅에서 일어날 때에는 바퀴도 올라가느니라. 그게 중요해요.

영은 이것의 일부입니다. 이 물건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9장의 끝으로 건너뛰어 그 사이에 있는 몇 가지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에스겔이 끔찍한 환상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바로 성전까지 침투한 우상숭배죠? 당신은 그것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점은 특히 8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영이 나를 하늘과 땅 사이에 올리셨는데 내가 3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니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서 있는 안쪽 문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8장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의 정말 마음을 사로잡는 성격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곳의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있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야,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작은 일이나? 그들은 또한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까? 이제 우상숭배가 너무나 꿰뚫어 성전 경내와 성전 자체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룹들 또한 이것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는 8장부터 다시 그룹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게시므로 그룹들이 일어났습니다. 19절 내가 본즉 그들이 날개를 펴며 땅에서 떠오르고 갈 때에 바퀴도 함께 진행하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전 동문 입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자,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면 저와 함께 멈춰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성막에 있었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에 계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잡았나요? 멀어지고 있어요.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전 동문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11장 22절을 계속 읽어보면, 바퀴 달린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 안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 위에 그쳤으니 내 말은, 내가 아마도 여기서 내 상상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냥 획획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애를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떠나 문 앞에서 잠시 멈춘다.

실제로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멈추고 그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멀어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 동쪽 산에 멈추자, 그는 거의 그의 백성을 떠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룹들과 큰 병거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하심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멸망 직전에 일어날 일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졌지만 그는 이 환상적 경험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이 바로 그에게 그가 알고 있던 성전의 회복, 즉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회복된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그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돌아가서 다른 교육 도구를 살펴보면서 다른 것들을 펼쳐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교육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비전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청중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37장으로 건너뛰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시니라

뼈가 가득했어요. 나를 그 가운데로 이리저리 데려가시면서 뼈는 부정하다는 것을 명심하셨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이 문맥에서 그는 의식적 부정함을 계약하게 될 장소입니다.

내가 골짜기 바닥에 뼈가 심히 많은 것을 보니 아주 마른 뼈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에스겔은 '오, 주권자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느니라 .

나는 영이 당신에게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여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놓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니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주인인 줄 알리라 주님.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했더니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예언까지 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 비전에 대한 해석을 갖게 됩니다 . 11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가 멸절되었다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오,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나는 그들에게서 당신을 데려올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 내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데리고 돌아올 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환상적 경험은 엄청난 격려와 희망이 됩니다 .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있을 것이며 뼈의 환상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것은 계속됩니다.

곡과 마곡, 또는 곡과 마곡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은 발음에 따라 다르지만 바로 뒤에 나오므로 적어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장에는 마곡이라는 땅에서 곡, 또는 곡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대군주인데, 그가 침략할 것이고, 물론 그 맥락에서 꽤 끔찍한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39장 11절에 있습니다. , 그 날에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의 매장지를 주리라. 바다를 향하여 동쪽으로 여행하는 자들의 골짜기에는 곡과 그의 모든 무리가 거기 장사되리니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렀을 때 그 연관성도 언급하셨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것이 사실이길 바라고 있다. 여기에 에스겔이 가졌던 세 번째 주요 비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방금 떠남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경험과 바로 연결됩니다. 에스겔은 새 성전을 보게 됩니다.

꽤 흥미롭습니다.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40장 3절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려가시매 내가 보니 청동 같은 사람이 세마포 줄과 측량장을 들고 문에 서서 모든 것을 측량하고 또 측량하려 하더라. 그들은 바깥뜰과 문간과 방들을 측량할 것입니다.

신부님들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음, 그거 좀 흥미롭네요. 이것은 무슨 사원입니까? 제가 여기에 질문을 합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무슨 사원입니까? 이것은 재건된 성전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곳에 있을 때 이야기할 성전이 재건된 성전에 대한 치수는 아닙니다. 사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재건되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성전이라면 왜 희생이 있겠는가? 나는 우리가 특히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 여기 위에 있는 히브리서 9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단 한 번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읽어 보면, 요한의 묵시록이 나오는데, 성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성자께서 그 도시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특히 희생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좀 흥미롭네요. 몇 가지 작은 항목을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사제들을 위한 방입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단은 43장 끝부분에 묘사되어 있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44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그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가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긴 토론을 짧게 하기 위해, 긴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을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모든 장식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것이 제거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세대 반에게 완전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앞을 내다보고 있으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말했듯이 그에게 친숙한 용어로 그것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제물, 제단, 제물을 위한 테이블에 관한 모든 것들이 상징적 표현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를 믿으세요. 긴 토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에 잉크가 많이 흘렸습니다.

사라. 그분은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예, 제 말은, 좋은 질문이군요.

그는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나는 아마도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일입니다.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글썄요, 또 다른 좋은 점은 그 사원의 상징이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 강입니다.

나무들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 강을 측량했고, 그 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강 양쪽 강둑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달마다 열매를 맺되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첫 번째, 나쁜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주셨고 그는 그 환상을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 메커니즘은 상징적 행동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상징적인 행동을 보았습니다. 질그릇, 아마포 허리띠, 무화과 바구니.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에게서도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설명이 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매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3장에서 그가 위임을 받았을 때 그 위임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가정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경전을 알지 못하고, 경전을 섭취하고, 받아들이고, 씹어서 사용할 수 없다면,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흥미롭게도 그가 실제로 그 두루마리를 씹은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해야만 당신은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부분적으로 음소거 상태가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서 집 안에 들어가 잠그세요. 그들과 함께 자신을 묶으십시오. 밧줄로 묶을 거야, 알았지? 당신은 묶여있을 것입니다. 26절에도 내가 혀 곧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이게 하리니 네가 잠잠하여 책망할 수 없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에 너희 입을 열리니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의 하위 텍스트는 사람들이 많은 단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어, 단어, 단어, 단어, 단어.

물론 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의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껏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라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모형을 세운다. 점토판 위에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는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쪽은 390일, 다른 쪽은 40일로 포위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는 또한 정말 적은 양의 배급량을 먹어야 합니다.

NIV 노트를 읽어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단식투쟁 중입니다. 정말 슬림하고 음식과 물. 공성 식량을 나타내는 식량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신부가 자신의 수염을 자르는 데 특별히 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군요.

그러나 에스겔은 5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1/3을 불타고 있습니다. 그는 칼로 1/3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1/3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저장된 작은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주 여호와께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뿔뿔히 검으로 그들을 추격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서 집어 넣으세요. 그것들을 치워두세요.

그들은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룹들이 떠나는 환상을 본 이후입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짐을 꾸리라고 말했습니다.

유배하러 나가는 것처럼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려는 일입니다. 당신은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성벽을 뚫고 이 성벽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짐을 싸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슬픈 것은 24장입니다. 16절: 인자야, 내가 단번에 네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리라.

그러나 울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자랐다.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터번을 단단히 묶고 발에는 샌들을 신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도 성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2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성소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당신의 눈의 즐거움. 당신의 애정의 대상.

에스겔이 당신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패턴이 앞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 끝, 그 때에 너희 입이 열리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적인 반란은 그 시점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글쎄요, 에스겔도 몇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상징적 행동, 그리고 우화입니다. 16장, 긴 장. 길고 비극적인 장.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피 속에 뒹굴며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발로 차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라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평판이 나쁜 여자로 변한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당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매춘부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 17장. 그럼 우리가 우화, 상징적 행위의 패키지에서 이야기와 내러티브로 이동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 경우 예루살렘은 독수리와 같습니다.

사실 독수리 같지는 않아요. 독수리가 와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바로잡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날개가 강하고 깃털이 길고 깃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왔습니다. 레바논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암호어이다. 그는 백향목 꼭대기를 붙잡고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꺾어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일부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있습니다. 7절, 강력한 날개, 풍성한 깃털.

그리고 저 사람은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부분은 이곳저곳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화와 그 경우에 주님의 포도나무에 관해 설명합니다.

23장은 매춘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둘 다 간음한 자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길다.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가 곧 갈 예정이다. 둘 다 우상에게 매춘을 한 사람들입니다.

티레 의 왕자 .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로 에 대한 예언은 26장에서 시작됩니다.

두로 성에 대한 예언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 어떻게 파괴될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였느니라 네가 마음의 교만함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바다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하느니라. 글썄요, 그 사람은 오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12절, 당신은 완전한 모형이시며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귀금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4절, 너는 수호 그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세웠음이라. 수호신과 그룹을 주목하세요. 우리는 방금 그룹들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그룹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수호 그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불타는 돌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네게서 악이 드러날 때까지는 네 모든 길에 흠이 없었느니라.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산에서 욕되게 몰아냈느니라. 오 수호 그룹이여,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쫓아냈느니라.

네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는 당신을 땅에 던졌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두로 의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 두로 왕에 대한 시적인 묘사입니다 .

그것이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 아래 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몇 구절이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응, 첼시. 어쩌면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배후에 있는 사악한 세력인 사탄에 대한 근본적인 언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인데,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아, 새벽의 태양이여, 샛별이여. 따라서 여러분은 티레 의 왕자에 대해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무언가는 그 끔찍하고 가장 사악한 힘과 아마도 그에 일어난 일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두로 의 왕 , 두로 의 왕자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미지 중 일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글썄요, 몇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루 동안 멈춰도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암울함과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맥락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의 이 회복 부분에는 다윗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집은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해당 구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집중하고 싶은 것은 36장에서 우리가 방금 설명한 뼈의 시각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34장 23절에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우리니 곧 내 종 다윗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3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23절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보이겠다. 너희가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리리라. 앞으로 다가올 물과 영혼의 조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를 감동시켜 내 율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도를 지켜 지키게 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몇 가지 주제를 들어보셨나요? 호세아가 준 것과 똑같은 약속, 곧 나로 대표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것과 같은 주제를 당신 안에 돌로 된 마음이 아닌 육신으로 된 마음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내 말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한다. 좋아요, 에스겔은 이런 것들도 알아냈고, 물을 뿌리는 것과 정결케 하는 것의 놀라운 합류와 그것이 어떻게 영과 결합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요한이 요한복음 7장 끝에서 그 점을 지적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하지만 이제 그만 해야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재응시가 필요하거나 재응시를 원하시면 오늘이나 내일 저에게 알려주세요. 금요일에 만나요.